

■ 어린이·청소년 지도자 자격제도 진단

지원책 없이는 '모래성' 쌓기일 뿐

조계종 포교원은 2006년부터 어린이·청소년 포교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4대 중점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포교원은 지도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2007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지도자 자격고시를 시행했다.

포교원은 어린이·청소년 지도자를 1084명에서 240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단법인 동련의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지도자는 2010년 9월 기준으로 1408명이다. 목표치에 크게 밑돈다. 이 중 불교어린이지도사 자격을 갖춘 이는 262명에 그친다. 불교청소년지도사는 2008년에는 116명이 자격을 취득했지만 다음해에는 37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증 굳이 필요한가?

10월 23일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불교 어린이·청소년지도사 육성 및 활동 방안'을 주제로 제43차 포교종책연구회 개최했다. 포교연구실장 정호 스님은 연찬회에서 "중단 차원의 어린이·청소년지도사 육성을 위해 자격고시, 각종 지도자 연수를 진행했지만 자격제도 및 관리에 한계점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며 지도사의 전문적인 활동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광호 동련 대한불교교사대학 부학장은 주제발표 '불교 어린이 지도자 육성 및 활동 방안'에서 "불교어린이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을 지도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는 굳이 종단의 자격증이 없어도 무관하고, 자격증에 대한 교사 우대나 혜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자격 소지자에 대한 우대나 혜택이 너무 미비하다는 것. 자격증의 기능도 못하고, 불자로서 자긍심도 주지 못하게 되면서 종단 자격증은 지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조한곤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은 2008년 도입된 불교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해서 "출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종단의 청소년 포교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점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지원제도 및 지도내용 등의 제반



조계종 어린이들이 법회를 보고 있다. 불교적인 소양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교사를 구하지 못해 어린이 법회를 못하고 있는 절이 여전히 상당수에 이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은 자격증 제도를 실시했다. <사진=현대불교 자료사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종단 지원·교사 적극성 높여야

조 사무국장은 자격고시 응시자격에서 '종단 포교원에서 지정한 청소년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규정 등 자격 요건을 강화, 종립 대학의 정규학과 및 대학원에 청소년 지도학과를 개설, 포교원 인가 신도전문대학에 청소년지도사 과정을 개설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조 사무국장은 현재 청소년 포교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요즘 청소년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포교하고 교화할 것인가가 구체화돼 있지 않고 설명 있다하더라도 개별 사찰마다 다르고 지도하는 지도자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지도교안과 지침이 없는 청소년지도사 제도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광호 부학장은 대안책으로 "폭넓은 자격 조건과 선별 조건이 병행돼 고시 시행방법을 연구해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어린이 교육에 남다른 교육 열정을 지닌 저명 인사 및 불자에 대한 무시협 정형 등 다양한 방법과 기준을 통해 선발하자고 했다.

또 '더 이상 어린이 지도자들을 신심에 의존하며 봉사하라는 자세를

3년 전 도입 2400명 목표...고작 400명 자격 취득

"신심으로 봉사하라는 자세 벗어나야" 쓴소리도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 포교기구의 활성화, 재정적 지원 등 종단차원의 지원과 함께 교사의 적극성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대성 삼선포교원 총괄간사는

"종단과 사찰, 사찰과 법회, 법회와 지도자 간 긴밀하게 하나의 고리로 움직여야 할 대상들이 각자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상연 기자

포교원, 인사고과에 어린이·청소년 지원 반영

포교원 어린이청소년 팀은 연말까지 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문제 개선에 나선다. 제도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지원, 혜택에 관한 부분이다. 제도만으로는 보강할 수 없는 부분을 고려해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포교원 어린이청소년 전담팀장은 "주지 스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주지 인사고과제도에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하는 주지에 대한 반영하고, 실무자 연수교육에서 주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강좌도 마련한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진행된 어린이·청소년 관련 투자는 고무적인 움직임이 많았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결과를 낳을 때도 많았다. 오랜 공백기에서 비롯된 허기를 단 시간에 해결하기 위한 폭식과 같은 투자가 있었다. 문제 해결에는 선택과 집중, 지속성이 있다.

포교원은 2006년부터 3년간 운영해온 어린이·청소년팀을 해체하고, 2011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위원회를 통해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종단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조기룡의 사찰경영학 ⑤

사찰 성장에는 원리가 있다

사찰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원력을 가진 스님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스님들이 사찰 성장을 위한 방법론에 집착하고 있음도 더불어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사찰 성장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 방법론만을 최선으로 삼는 것은 자못 위험할 수 있다. 어느 사찰에서 급성장을 가능하게 한 방법이 제반 여건이 다른 사찰에서 효과적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리는 다르지 않다. 원리는 '사물이 근거로 하여 성립할 수 있는 근본이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찰 성장의 원리란 시간적으로는 조전법륜 당시나 현대사회의 변화없이 효과를 나타내는 원리이며, 공간적으로는 동양과 서양, 대형사찰과 소형사찰을 막론하고 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다. 사찰 성장의 원리에 충실하면 사찰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사찰 성장의 원리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주지 리더십의 원리, 신도참여의 원리, 법회역동의 원리, 전법도생의 원리, 사찰경영의 원리 등 다섯 가지이다.

'주지 리더십의 원리'란 사찰 성장은 주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주지는 사찰성장의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조직을 지도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추종자에 의해 선택된 사람을 의미한다. 지도자는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표를 구성원을 이끌어가야 하며 조직의 궁극적 목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는 조직을 유지하고 융화하기 위한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지는 신도들 헤드십(headship)이 아닌 리더십(leadership)으로 이끌어야 한다. 리더십이란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조직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것인데 반하여 헤드십은 강제적 권위를 앞세워 구성원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지가 자신의 리더십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리더십을 타고난 주지라면 더욱 유리하다. 하지만 그러한 주지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자기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자기개발의 네 가지 사이클은 태도, 지식, 훈련,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주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늘 유지해야 한다.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 낙관하며 비전과 꿈과 환상에 사로잡혀야 한다. 주지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져야 한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추세를 알고 있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지는 끊임없이 독서하여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여야 한다. 또한 경전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주지는 원리와 방법론을 끊임없이 실행하고 실천해서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공부만 하고 말만

서는 안 된다. 그것을 사찰 현장에서 행해야 하고 적용해야 한다. 주지는 종무행정 기술을 고품질로 높여야 한다. 특히 조직을 관리하고, 실행을 잘하고, 사람들을 배치시키고 활용하는 기술이 탁월해야 한다. 긍정적 태도, 정확한 지식, 철저한 훈련, 그리고 탁월한 기술은 사찰성장형 불교리더십을 개발하는 핵심요소라 할만하다.

'신도참여의 원리'란 주지 혼자서 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모든 신도가 사찰 일에 참여하는 사찰이 성장한다는 것이다. 주지 혼자서 사찰을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주지일지라도 반드시 신도의 협력과 참여가 따라야 한다. 신도를 구성원이 아니라 일꾼으로 만들고, 참석자가 아니라 교역자로 만들 수 있는 사찰이 성장한다.

모든 신도가 교역자가 되어야 한다. 주지가 전임(full time) 교역자라면 신도는 시간(part time) 교역자라고 할 수 있다. 신도는 무한한 잠재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사찰의 모든 신도를 단지 법회 참석자가 아니라 교역자와 지도자로 참석하게 한다면 모든 사찰이 달라질 것이다. 신도를 지도자로 만들어 교역에 투입하는 신도 교역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갈수록 증대되고 강조될 수밖에 없다.

'법회역동의 원리'란 법회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법회에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회는 사찰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법회는 신도들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비신도도 참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법회는 비신도를 포교하여 사찰에 소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회에 처음 참석하는 사람이 다시

금 찾을 수 있는 법회를 병행해야 한다. 초심자가 사찰을 선택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회 체험이다. 그들이 처음 참석했을 때 법회가 지루하고, 법문이 실제의 삶과 무관하고, 불사금만 강조하면 다시는 사찰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찰성장을 원한다면 초심자가 좋아하는 법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들이 사찰을 선택하는 첫 번째 요소도 법문이지만 사람들을 사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첫 번째 요소도 법문을 인지하여야 한다. 사찰성장에 도움이 되는 법문이 되기 위해서는 경전적이면서도 실제적이며, 재미가 있으면서도 의미가 있어야 하고, 단순하면서도 수준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스님이 만든 생식 공유 50%를 받아서 신도 호소 발아생식

- 1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되었습니다.
- 2 유기농으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 3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 4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이 아닌 중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불심 깊은 불자님 지역종반 모집합니다. 070-7629-5920

13월 11월(40g) x 60포(2개월분) 100,000원

예리한 심리묘사 • 아름다운 문장 • 놓칠 수 없는 재미와 감동!!

스님이 쓴 바로 그 소설!!

길상지음 **숲속의 문**

울창한 숲, 마음으로의 깊고 향기로운 여행

우리 모두는 숲 속에서 문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였노라. 눈으로 세계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몸으로 감각을 느끼는 지각작용의 숲 속에서 문을 찾아 헤매던 여행자였노라... 나는 그 환영(玄峯) 속에서 문을 찾아 숲 속에서 느끼는 많은 풍경들을 모순이라고 느끼며 해결책을 찾아 헤매었다. '그것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허깨비였는데 마치 악몽을 꾸듯 몽환(夢幻)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렸던 나그네였노라!'

길을 찾아 숲으로 떠난 외로운 수행자의 구도소설
사랑·자유·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길·당신의 길·우리의 길

값 10,000원

출가 후 한국과 일본, 미국 등지에서 수행과 포교를 실천하고 현재 글을 쓰며 수원에서 도심 포교당을 열고 '살이 곧 진리'라는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길상스님

도서출판 푸른향기 02-860-5663 www.bluebook.pe.kr